



2023. 10. 12.



차례

1. 협의회 활동:
 -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토르플렌터 화상회의
 -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 보좌관 면담
 - 주한러시아대사관 방문
 - 제15회 МАПРЯЛ 총회 참석
2. 협의회 향후 일정:
 - 공동학술대회 통합분과 참석
 - 러시아어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3. 인터뷰:
 - 봉명초 손희순 교장선생님
4. 에세이:
 - 김경민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 박규민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 정세빈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과정)
5. 회원 동정
6. 공지 사항

알림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는 2023년 8월 국세청에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에 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하나은행 391-910032-69304 예금주: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2. 협의회 활동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토르플센터 화상회의

협의회 회장단은 2023년 8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토르플센터 이리나 일리초바 교수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진규 회장은 협의회 설립과 구성,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일리초바 교수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 보좌관 면담

협의회 회장단은 2023년 8월 9일 국회본청에서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실의 김정훈 보좌관과 면담하여 국내 러시아어교육의 현안과 난점을 브리핑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월 4개 교육청(경기, 강원, 충북, 대전)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러시아어 교사 임용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러시아대사관 방문

협의회 회장단은 2023년 8월 21일 주한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여 안드레이 쿨리크 대사, 알렉산드르 콜가노프 인문협력청 대표, 미하일 코세예프 3등서기관을 면담했습니다. 협의회는 초·중·고·대 각급 학교 차원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러시아어문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했으며, 주한러시아대사관은 협의회 창립과 활동을 축하하며 향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협의회 활동

제15회 МАПРЯЛ(국제러시아어문학교원협의회) 총회 참석

협의회 김진규 회장과 남혜현 부회장, 드 에드워드 고문은 2023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5회 МАПРЯЛ (국제러시아어문학교원협의회) 총회에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회장단은 블라디미르 톨스토이 МАПРЯЛ 회장, 니콜라이 크로파체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총장, 드미트리 프튜시킨 상트페테르부르크대 토르플센터장, 이리나 일리초바 상트페테르부르크대 토르플센터 전문위원 등을 면담하고, 총회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협의회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 협의회 향후 일정

공동학술대회 통합분과 참석 (10월)

협의회 회장단은 2023년 10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2023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 『격변의 러시아·유라시아와 한국』 통합분과(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통합분과 (라운드테이블)		하나스퀘어 강당(B112호)
17:00~17:50	토론주제: 교육 현장에서의 러시아학의 미래 토론자 : 김진규(고려대, 협의회 회장) 장진실(동신대, 협의회 회원) 김한나(봉명초, 협의회 총무) 임미은(선일중, 협의회 부회장) 박소윤(서연고, 협의회 회장)	사회: 한국노어노문학회장 전해진

러시아어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11월)

협의회는 2023년 11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러시아어 교수법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한러대화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러시아어 전공 대학생(재학생 및 졸업생) 2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1. 운영개요

- 1) 일시 및 장소
 - 1차: 2023.11.11. (토) 선일중학교 (경기도 안산시)
 - 2차: 2023.11.18. (토) 서연고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 2) 대상 및 인원: 러시아어 전공 대학생으로 1,2차 모두 참여 가능한 자 (선착순 20명)
- 3) 강사: 임미은 선생님 (안산 선일중 교사, 한국어교육 석사, 다문화교육 박사 수료)
박소윤 선생님 (동탄 서연고 교사, EBS 러시아어 대표 강사, 교과서 집필 위원)

2. 운영 세부 내용

회차	일정		운영 내용
1	11.11 (토)	10:00-13:00	[축사] 허승철 고려대 교수/한러대화 사무국장 1교시: 언어 수업 사례 나눔 2교시: 교과 융합 및 '삶의 관점' 수업 사례 나눔 3교시: 러시아어권 이주 배경 학생 이해
		13:00-15:00	[특강] 간단히 살펴보는 고려인 역사 (김진규 고려대 교수/한러대화 교육과학분과 위원) <특별 문화 체험> 안산 고려인 마을 탐방 및 고려인 역사 이해 체험 러시아 음식 문화 체험 (고려인 학생 동행)
2	11.18 (토)	14:00-17:00	1교시: 언어 수업 실행 2교시: 문화 수업 실행 3교시: 교과 융합 및 삶의 관점 수업 실행
		17:00-19:00	수업 평가 및 멘토링 고등학생 대상 진로 멘토링 (석식 제공)

봉명초등학교 손희순 교장선생님

최근 충북지역에 러시아 언어권 이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는 인근 산업단지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집값이 높지 않으면서도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청주 봉명초등학교는 러시아어권 이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현재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의 약 90%가 러시아어권 화자로, 그 대부분이 고려인입니다. 이에 현장의 상황을 듣고자 봉명초등학교 손희순 교장선생님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 최근 4년간 다문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편중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독 봉명초에 러시아 언어권 학생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 산업단지, 집값 외에도 이곳은 러시아권 이주민들 간에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주민들이 낯선 환경에 정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권도 좋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환경도 좋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텐데, 봉명초의 교육 환경과 시스템은 러시아어권 학생들이 와서 학습하기에 충북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4년 전에 27%(131/487명)였던 것이, 현재 54%(288/538명)로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으로 러시아어권 학생을 위한 인력풀 시스템이 다양하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어 원어민 교사 1명, 다문화 강사 2명, 러시아어가 가능한 수업지원튜터가 5명으로, 최적의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원어민 교사 1명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러시아어권 학생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이는 충북이 타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수업지원튜터입니다. 이전에는 수업 시간에 러시아어권 아이들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튜터 덕분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 부임 초기에는 학부모들이 통역사를 대동하고 학교에 왔었는데, 지금은 학교 자체 인력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다문화 아이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인지 다문화 학생의 국내 전입 또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다문화 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한편으로 높은 다문화 수용성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다문화 학생을 대하는 데에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으신지요?

☞ 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제 교육 철학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입니다. '한국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똑같이 평등한 조건에서 출발점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환경 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등 직속 기관과 요청·협의하여 오늘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문화 학부모들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아침 등교 맞이'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함께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다져 나갔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고민해 왔습니다. 연구학교를 통해 '다름'의 이해 교육을 먼저 했고, 지금은 다문화 감수성, 다양성 교육으로 와서 '서로의 다름'을 칭찬하면서 "한국어를 못할 뿐이지 잘하고 있어." "한국어가 어려우면 러시아어로 해도 돼."라며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성취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표현하면 또 누군가는 통역을 해 줍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가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일부러 그 나라를 찾아가지 않아도 친구의 언어를 내가 배우고, 친구의 문화도 배웁니다. 학년말에 다문화 모임이라고 해서 학교 평가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데 '다문화 친구들이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며 선주민 아이들도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비전은 '행복 4종주로 제 빛깔을 찾아가는 함박꽃 이야기'인데요. 행복 4종주는 교육의 4주체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이 4주체가 모

4. 인터뷰

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은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동학년끼리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학부모는 또 학부모대로 고민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고민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 주민분들 또한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외국분들을 배척하지 않고 외국 엄마들을 품고 갑니다. 졸업할 때 외국 아이들이 선주민 아이들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해 장학금을 10만 원씩 6학년 전원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는 한국 학부모들의 노력과 봉명동 지역사회회의 훈훈한 정서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3. 고려인 학생 또는 고려인 학부모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들을 대하는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고려인 학부모를 처음 대했을 때 정말 순수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에 여행 갔을 때의 순수함과 따뜻함이라까요. 지금은 고려인 학생이 과반이 되었다 보니 이분들도 또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집단이 커지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여전히 학교와 교사를 대하는 존중 역시 느껴집니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청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편입니다.

고려인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의 가정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곳에 온 러시아어권 가정을 보면, 가부장적이며 아이의 교육과 훈육을 어머니께서 거의 중점적으로 챙깁니다.

흡연 문화 또한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흡연을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한국 가정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고려인 아이들은 현재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라이터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종종 목격하기도 하고, 지역공원에서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접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철저히 교육하고는 있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인 아이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주민 아이들은 낯선 곳에 와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아이들이 덜 외로워하고 정서적으로 밝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던 모국이 아닌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이주민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 학교에는 부모가 3교대로 근무하는 이주민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학교에는 상담사가 한 명 더 배치되어 앞으로 상담실을 2곳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 마지막으로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에 한 말씀 하시거나 협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업협력교사(학습지원터) 인력 양성과 인력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언어를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수업 내용 통역이 가능한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은 계약 관계 때문에 이 분들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서원초에도 러시아·중앙아시아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음성지역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청주시에 고려인 지원 조례도 생길 것이며 제천은 고려인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행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언어권 학생이 다수인 학교가 증가한다고 보면, 학습지원터의 수요도 늘어날 텐데 유관기관과 함께 인력풀 양성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지만 이주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국어, 사회, 역사입니다. 이러한 과목에 대한 러시아어로 된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거나 교과서를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보급되면 아이들이 통역사가 없이도 직접 내용을 찾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병기된 동화책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언어가 병기된 동화책이 적다 보니 가격 또한 비쌉니다. 양질의 도서가 번역·출판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3년째 러시아어 도서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이중 언어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학교와 국제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학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 영어권으로는 국제교육센터, 정부 등에서 학교 연결 지원을 해주는데, 러시아어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연결점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엔 학교에 연접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러한 국제교류는 새로 전입할 한국 학생과 부모에게 학교의 특징점과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자: 김한나 (봉명초 한국어 강사)

5.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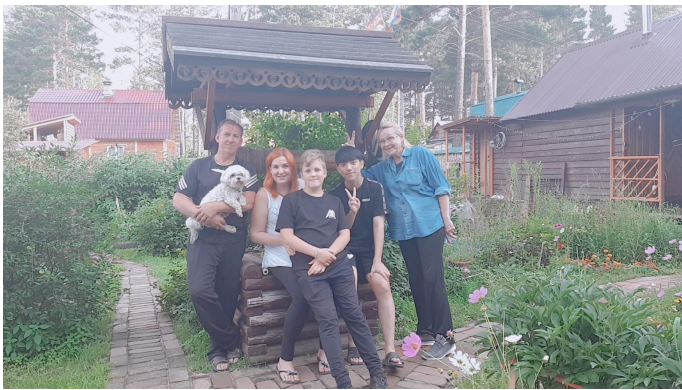
러시아어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매개다.

김경민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서 교직과정을 밟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먼저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사랑하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또래 학우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호를 읽으며, 문득 러시아와 깊은 사랑에 빠졌던 두 번의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2018년 여름, 이르쿠츠크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다차’에서 팔뚝만 한 ‘샤슬릭’을 배 터지도록 먹었던 일, ‘바냐’에서 러시아 콜라라는 말에 깜박 속아 ‘크바스’를 마신 일, 밤늦도록 러시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인솔 선생님께 크게 혼난 일, 이 모든 추억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합니다.



당시 썼던 기행문에서, 저는 바이칼 호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햇살이 드넓은 호수를 비추고, 일렁이는 파도를 따라 반짝러리는 햇빛이 아름다웠다. 너무나 투명하게 찰랑이는 호숫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 보았을 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다가 아니라 담수호라는 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곁에 두고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러시아어를 하지 못했다면, 바이칼 호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러시아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기회도,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인 2019년 2월,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21일간 러시아를 여행했습니다. 다 헤쳐가는 티셔츠를 걸친 무뚝뚝한 아저씨 ‘막심’, 쉴 새 없이 으깬 감자며 피클 같은 음식을 나눠주는 할머니 ‘안나’, 크라스노다르와 소치의 자량을 연신 늘어놓던 노부부, 열차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소소한 환대를 베풀었고, 그들의 일상



은 제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바이칼은 여름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바이칼이 세상 만물을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았다면, 겨울의 바이칼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차가운 얼음 마녀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얼음 호수에 쉴 새 없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변두리를 푹푹 얼어버린 산맥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시간은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훑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서방이 두려워했던 크렘린과 현대적인 마천루가 동시에 들어서 있는 모스크바는 그야말로 러시아의 심장이라는 말이 걸맞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박물관과 에르미타주에서 보낸 시간은 예술에 무지함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두 번의 러시아 여행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뜻깊은 경험입니다. 흔히 “언어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매개”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제게 새로운 세상이란 곧 두 차례의 여정에서 쌓은 경험과 추억이었으며, 러시아어는 그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해준 교두보였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선뜻 러시아로 떠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심을 그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성을 다하고 계신 학우, 연구자,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오면 저를 비롯한 모든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이 러시아에 직접 부딪히며 견문을 넓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러시아어는 나에게 _____ 이다.

박규민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누군가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었냐 묻는다면 지금의 나는 서연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작은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의 10년의 계획을 꿈꾸게 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나는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학생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보다는 단조롭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평범하게 남들만큼만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한 나의 유일한 기대였다. 그러다 중국어와 러시아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나는 그저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큰 뜻 없이 러시아어를 선택했다.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지만 속마음에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요소를 갖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도 난 여전히 꿈이 없었다.

그러다 내가 러시아어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용기 내서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때 선생님께서는 ‘러시아학과는 어떠니?’라고 물어보셨다. 나는 평소 언어에 대한 재능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물어두었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 그 질문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내 마음을 울렸던 것 같다.

그날 이후 2년간의 내 고등학교 생활은 그전의 생활과 많이 달라졌다. 러시아어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나도 언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러시아 문화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즐거운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서 집중했던 수업을 처음 만나고 나서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을 조금씩 그만두기 시작했다. 나는 궁금한 것이 있어도 혼자만 생각하던 학생이었지만 여러 대학의 노어과 교수님들께서 서연고를 방문해 러시아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마다 나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학생이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평소 하고 싶었던 러시아어 동화책 번역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고려인분들께 기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해보았고 러시아어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지역학 동아리를 만들어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를 즐겁게 탐구해 나갔다. 생활기록부에는 그저 텍스트로만 쓰여 있는 2년간의 생활이지만 나는 그 이상



의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렇게 나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 나갔다.

더 이상 나는 꿈이 없는 학생이 아니었다. 나는 미래에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도 자주 하는 학생이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씩 각자 주어진 화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어떤 물을 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름을 주는지에 따라서 피어나는 것이 있다. 내가 러시아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는 무언가가 피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내 삶이 다채로운 빛으로 채워진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러시아어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창한 것으로만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아무리 작은 선택이 어도 선택은 선택을 놓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낸다.

“너에게 러시아어는 뭐니?”

나에게 러시아어는, 선택이었고 노력의 과정이었고 재능의 발굴이었으며 미래의 나와 함께 할 친구이다. 좋은 친구를 얻었기에 항상 함께하며 같이 꿈을 꿀 예정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이러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러시아어는 평생 함께할 친구 정세빈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노어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세빈입니다.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창립을 축하드리며 저 역시 앞으로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의 일원이 되어 있을 모습을 상상해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뵈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러시아에 살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다 보니 러시아인 친구들에 비해 러시아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 좋은 러시아어 선생님을 만나 러시아어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고 칭찬과 격려로 이끌어 주며,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되기로 진로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밟으면서 러시아어에 반하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푸쉬킨의 「차아다예프에게」라는 서신을 읽던 중 알 수 없는 벅참을 느껴 그의 서신들을 더 찾아 읽었고, 저처럼 푸쉬킨을 사랑했던 레르몬토프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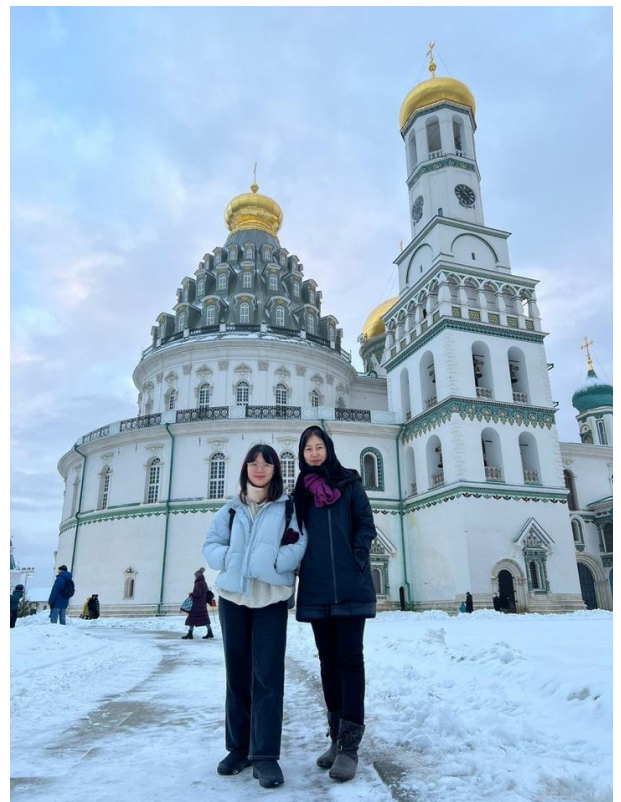
그가 푸쉬킨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시인의 죽음」을 읽을 때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과 같았으며 「고향」이라는 시를 읽었을 땐 그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탄하였습니다. 러시아 문학가들을 통해 진정한 러시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의 매력에 빠져 이를 평생 학문으로 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중, 노어노문학과 학회 『카플리』에서 회장을 맡으며 러시아어 구조와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한국인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CIS 연구소 산

하 프로젝트팀 『카란다쉬』에서 번역부장으로 고려인 3세, 4세 아이들에게 민족적 소속감을 심어 주기 위해 한국어-러시아어 병기 동화책 『어흥~ 호랑이와 함께하는 한국전래동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역시, 러시아어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러시아어는 참 어려운 언어에 속합니다. 러시아어로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와 동사나 형용사의 성, 수, 격을 일치시켜야 하고, 올바른 동사의 상과 시제를 사용해야 하고, 복문에서는 가장 적합한 의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완벽한 문장을 완성했을 때 오는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어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들과 어순에 따라 달라지는 작은 뉘앙스 차이는 러시아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러시아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러시아어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을 더욱 굳게 합니다.

무르만스크에서 본 오로라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러시아! 제가 자란 연해주 땅, 교환학생으로 잠시 머물렀던 모스크바, 그리고 여행으로 다녀온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 한정된 지면에 세세히 적을 수 없지만, 훗날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못다 한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6. 회원 동정

[고려대학교 러시아연극연구회 『ANTAGONIST』 공연]

8월 11~12일. 고려대학교 러시아연극연구회 제38회 연극 『ANTAGONIST』.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현대극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고려대 연극 동아리 선후배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과 갈등의 이야기, 삶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대학로 피카소소극장.



[서울대학교 노문극회 에르페투스(PTCYC) 『큰아들』 공연]

8월 26~27일. 서울대학교 노문극회 에르페투스 제26회 연극 『큰아들』. 해빙 시대의 극작가 알렉산드르 밤필로프 작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4동 인문소극장.



6. 회원 동정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원어연극 동아리 M:XAT 『곰』, 『청혼』 공연]

9월 26~27일.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원어연극 동아리 M:XAT 제1회 연극 『곰』, 『청혼』 (안톤 체홉 원작). 연세대학교 무학극장.



[중앙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원어연극 동아리 브메스페 『운명의 아이러니』 공연]

11월 7일. 중앙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원어연극 동아리 브메스페 연극 『운명의 아이러니』. 동명의 영화를 각색한, 한국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중앙대학교 310 소극장.

[중앙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원어노래 동아리 아이율리 『나 홀로 모스크바에』 공연]

11월 7일. 중앙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원어노래 동아리 아이율리 공연 『나 홀로 모스크바에』.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순수 창작 뮤지컬. 중앙대학교 310 소극장.



브메스페



아이율리

[연세대학교 소논문 공모전 결과]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서는 학부생들의 연구 의욕과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학문 후속 세대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매 학기 소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제3회 소논문 공모전에서는 이유민 학생(22학번)이 「문학 그리고 인간의 존재 물음: 헤겔의 현상학과 하이데

거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해석한 <우스운 사람의 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세미나 개최]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는 2023년 9월 21일 『청주지역 러시아어권 이민자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장진실 동신대학교 TESOL학과 교수가 「다중언어학습자의 언어 사용과 작인(Agency)」, 김한나 봉명초 한국어 강사가 「청주 러시아어권 초등학생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제언」, 신발레리야 충북대 러어러문학과 학생이 「학습자로서의 한-러 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7. 공지 사항

회원명단 (2023년 9월 30일 현재)

강수경, 강철, 권미선, 김미원, 김보라, 김상원, 김상현, 김선안, 김성일, 김소령, 김용화, 김자영, 김정희, 김준석, 김진규, 김태연, 김태옥, 김한나, 김형섭, 나리나, 남혜현, 드 에드워드, 말체바 나데즈다, 박소윤, 박종소, 박현아, 손현익, 송선희, 송정수, 승주연, 심나탈리야, 심성보, 아지모바 나시바, 안혁, 용금주, 유정화, 유학수, 윤정윤, 이경완, 이기주, 이명현, 이영준, 이주홍, 이지은, 이호림, 임나탈리야, 임미은, 임은성, 잔나 발로드, 장디아나, 장주창, 장진실, 전해진, 정경민, 정명자, 정세빈, 정영순, 정영주, 정유리, 정하경, 정현진, 정혜린, 제성훈, 차상경, 최문정, 최수현, 최정환, 최하나, 추나레바 안나, 피사레바 라리사, 한지형, 함영준, 허성태, 허운경, 호로호르디나 올라

[특별회비 내신 분] 김진규 남혜현 박소윤 임미은 (각 30만원)

[회비 납부 안내]

정회원 연회비 3만원 (대학의 러시아어 관련 강의·연구 종사자, 초·중·고교의 러시아 관련 교강사)

준회원 연회비 1만원 (러시아어 관련 학부 및 대학원생, 관심 있는 일반인)

기관회원 평생회비 30만원

하나은행 391-910032-69304 예금주: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소식은 홈페이지(www.katpr.or.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pr23)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katpr@naver.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러시아어교사
교수협의회

katpr.modoo.at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65 청산MK문화관 504호

전화번호 02) 3290-5356

E-mail katpr@naver.com

NAVER

한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modoo!